

碩士學位論文

# 濟州觀光 活性化를 위한 캐릭터디자인 研究

제주고유의 민속소재인 동자석(童子石)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禹 鍾 九

碩士學位論文

# 濟州觀光 活性化를 위한 캐릭터디자인 研究

제주고유의 민속소재인 동자석(童子石)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孫永秀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禹 鍾 九

2003

# 濟州觀光 活性化를 위한 캐릭터디자인 研究

제주고유의 민속소재인 동자석(童子石)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孫永秀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6月 日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視覺디자인專攻

禹 鍾 九

禹鍾九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3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 국 문 초 록 (抄 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항 ----- 제주(濟州)

2002년 말 기준으로 세계 관광인구는 약 6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고, 국가와 지역의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이에 세계 각 국은 일찍이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 내지 대체산업으로 인식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였고, 그 경쟁 또한 치열하다.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의 관광전략은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수입의 창출이라는 목표하에 시대적 흐름과 관광객의 요구 및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져 왔다.<sup>1)</sup>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육지와 다른 독특한 제주 민속권을 이룬다. 제주는 지리적 환경의 특수성으로 하여 의식주, 신앙, 세시풍습 등이 독특하고 개성적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절해고도일 뿐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는 귀족적 고급문화와는 달리 원초적이고 도민적 기반 위에 제주도 풍토적 생활에 알맞게 토착화되어 육지와는 다른 특유한 민속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듯 민속자료 면에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며 향토색이 짙은 풍부한 연구자료들이 잔존하고 있어 학계와 일반대중들의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제주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제주도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돌하르방, 방사탑, 그리고 조상의 묘소를 지키기 위한 산담과 동자석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현실에 대처하는 또 다른 일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특히 제주 고유의 민속소재인 동자석은 제주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잘 표출시키고 있으며, 물질문명에 날로 식상해 가는 현대인의 의식구조에 동자석의 친근감 또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동자석을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 동화적이고 회화적인 표현으로 캐릭터디자인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

---

1) 신동일, 제주의 장기체제형 관광/그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2002, p.42.

겠다.

캐릭터는 단순히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이다. 캐릭터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산업’이라 말할 정도로 이미 캐릭터의 개념은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캐릭터는 지역홍보의 효율을 높이고 제주의 독자적인 문화와 특성을 갖기 위한 지역이미지의 차별화를 유도하는데도 효과적이다.

현재 제주도는 자연적인 관광조건이 매우 훌륭하여 많은 관광객이 도내를 왕래하고 있다. 캐릭터 상품은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문화, 풍속, 민속, 역사 등을 이해시키고 또는 기억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캐릭터 상품의 차별성 있는 개발은 제주의 전통문화를 상품화하여 보급시킴으로써 1차적으로 제주에 대한 이미지와 관광지로서의 선호도를 높이고 2차적으로 우리의 제주문화를 세계화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목 차

## ■ 국문 초록(抄 錄)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 II. 제주도 돌 문화의 발생 요인과 고찰

- 1. 제주의 역사 ..... 5
- 2. 제주의 지역적 특성 ..... 5
- 3. 관광지로서의 제주 ..... 6
- 4. 제주의 관광상품 ..... 7

### III. 동자석의 조형적 연구

- 1. 제주도내의 민속(돌)자료 ..... 10
- 2. 제주의 동자석 ..... 20
- 3. 동자석의 배치와 기능 ..... 22
- 4. 동자석의 분류 ..... 22

### IV. 캐릭터 구성요소에 따른 이미지 분석

- 1. 동자석의 구성요소로서의 분석 ..... 30
- 2. 동자석의 이미지로서의 분석 ..... 30
- 3. 제주지역의 캐릭터 실태 분석 ..... 35
- 4. 분석 결과 ..... 42
- 5. 디자인 추진 방향 ..... 44
- 6. 시작품 ..... 47

### V. 결 론 ..... 62

■ 참고문헌	64
■ ABSTRACT	65

## 표 목 차

(표 1) 제주관광의 SWOT분석	8
(표 2) 제주의 관광상품	8
(표 3) 제주도 전역 동자석 분포도	21
(표 4) 서울시 캐릭터	33
(표 5) 지방자치단체 캐릭터	33
(표 6) 안동문화방송 캐릭터	34
(표 7)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캐릭터	34
(표 8)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캐릭터	35
(표 9) 제주도 메인 캐릭터	36
(표 10) 제주도 메인 캐릭터 응용편	36
(표 11) 제주도 상품화 캐릭터	37
(표 12) 제주시 캐릭터	38
(표 13)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캐릭터	40
(표 14)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캐릭터	41
(표 15) 제주에서 사용중인 캐릭터	43
(표 16) 디자인 컨셉	44
(표 17) 조형요소의 구성원리	45
(표 18) 캐릭터 네이밍	46
(표 19) 캐릭터 칼라 로고	46
(표 20) 네이밍 기본 색상	46



## 사 진 목 차

(사진 1) 돌하르방	11
(사진 2) 영등하르방	14
(사진 3) 복신미륵	14
(사진 4) 거옥대와 까마귀	14
(사진 5) 지식묘(고인돌)	16
(사진 6) 창천지석묘	16
(사진 7) 선돌	18
(사진 8) 돌담	18
(사진 9) 묘비	18
(사진 10) 방사탑	20
(사진 11) 정주석과 정낭	20
(사진 12~15) 동자석의 위치적 분류	23
(사진 16~20) 동자석의 성별 분류	24
(사진 21~22) 동자석의 형태별 분류	24
(사진 23~42) 동자석의 기능별 분류	26~29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관광산업은 21세기 미래 핵심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 환경산업과 함께 미래 3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관광산업은 세계 최대산업이며, 21세기에는 연평균 3~5%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되는 성장산업이다. 제주도는 도쿄, 북경 등 2시간 이내 1천만명 이상 5개 거대도시와 3시간 이내 인구 1백만명 이상 50개 대도시를 연결하는 동북아 요충 지정학적 연계가치와 대기, 수질, 해양 등의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청정지역으로 미국의 뉴스위크에 특집기사로 다루어질 만큼 국제적 관광지로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sup>2)</sup>

제주가 국제 관광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서로 만나는 곳이 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제주도의 독특한 특성들을 살려내어 지역 특유의 소재를 사용, 캐릭터디자인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짐으로써 그 지역을 다시 찾고 싶게 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수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거기에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산품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특함과 특산품은 문화상품으로서 그 지역 주민의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해주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sup>3)</sup>

이러한 점에서 한 지역의 생활에 밀착되어 창출되고 변천하여 온 독특함을 통하여 그 지역문화의 일면과 미의식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지방 민속문화의 참다운 방향과 재발견이 모색될 수 있다고 하겠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물인 돌하르방과 동자석은 제주 돌문화의 상징물로서 역사적으로나 조형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본다.

---

2) 양영근, 제주관광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통권 제42호, 제주시, 1999, p.71.

3) 김영현외,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디자인사고 확립 및 시행방안, 디자인학 연구, 2002, p.77.

이에 본 연구는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차별화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인지도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주도 돌문화의 하나인 ‘동자석’을 중심으로 그 특성과 자연발생적 배경에서 이론적 근거자료를 통찰하고 동자석의 형태와 문양을 고찰하여 보존가치를 인정하고 제주도 돌 문화를 재발견하여 관광상품으로서의 캐릭터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한국 최대의 섬이다.

아름다운 바다와 한라산, 수많은 오름들과 기괴한 암석, 돌하르방이라는 독특한 문화유산 등, 제주도는 무한한 자원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제주도가 화산섬이라는 지형은 수많은 기괴한 암석과 지역 곳곳마다 지천으로 돌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상 제주는 독특한 돌 문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 중 제주도만의 독특한 장례문화인 무덤을 지키는 동자석은 그 조형성이 독특하고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조형물이다.<sup>4)</sup>

현재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동자석의 유물자료를 근거로 하여 동자석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성과 향토성에 역점을 두어 이를 응용한 캐릭터디자인을 시도하려고 한다.

동자석을 이용한 캐릭터가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이고 향토적이며, 제주만의 문화적 특성과 독창성을 가미, 제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환태평양 유수의 관광지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가관광산업의 신장은 물론 미래의 대응 방향으로 제시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제주의 독특한 문화적 향취와 신비하면서도 소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동자석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주도의 풍토적 환경과 인문, 지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동자석의 이론적 근거 자료를 정리, 현재 제주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동자석을 직접 촬영·조사하여 관광상품적 가치를 유출해 내고 그 특징을 살려 전승과 보존의 기초자료로서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도민의 자부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특정의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데 동자석을 소재로 한 캐릭터는 향토애와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며 대내외 홍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

4) 김성은, 제주도 돌 문화와 조형디자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2, p.36.

셋째, 각종 공공시설물 및 홍보물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시 활용할 수 있어 제주도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홍보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도 관광상품의 특성을 알아보고, 현재 제주 관광상품의 현황 및 제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캐릭터디자인 실태를 조사·분석, 타 관광지와 차별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동자석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전개로 시작품을 개발, 제시하였다.

## II. 제주도(濟州島) 돌 문화의 발생 요인과 고찰

### 1. 제주의 역사

제주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년전인 신생대 제3기에서 제4기에 이르는 동안 여러 차례의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화산섬이다. 화산활동 및 빙하 해수면 변동과 지각운동에 의한 지형의 변화에 따라 제주도는 대륙과 연륙(連陸)되었다가 또 고도(孤島)로 변화하는 등 이러한 상태가 여러 차례의 반복으로 인하여 특수한 오늘의 제주도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섬의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 정상에는 그 당시 화산활동의 분화구인 직경 700m의 백록담이 형성되어 있다.

제주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섬의 북부지방인 제주시와 북제주군 일대에서 선사문화 유적 발견으로 미루어 선사시대부터 원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 양, 부 3성이 건국하였다는 삼성신화(三姓神話)가 있으나 확실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제주의 옛 명칭은 도이(島夷)·동영주(東瀛州)·주호(州胡)·탐모라(耽牟羅)·섬라(涉羅)·탁라(浞羅)·탐라(耽羅) 등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불렸다.

### 2. 제주의 지역적 특성

제주의 지형은 한반도의 서남단 해상 (동경 126도 10분에서 126도 58분, 북위 33도 12분에서 33도 34분 사이)과 동지나해의 북단에 위치한 화산섬으로써 그 크기는 동서로 73km, 남북으로 41km, 면적 1,845km<sup>2</sup>의 타원형의 모양으로 되었으며, 섬 중앙에 1,950m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은 매우 완만하고 남북 방향은 약간 급한 경사를 이룬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일주도로의 길이는 182km이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여러개의 횡단 도로와 크고 작은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

지형이용 형태는 고도 200m 이하의 해안지대는 섬전체 면적의 55.3%로서 주거

지를 비롯하여 농경지 및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발 200m~500m의 중산간지대는 목장을 비롯하여 관광지와 유희지가 되고 있다. 또 해발 500m~1000m의 산지는 산림 및 목야지로 이용되고 1,000m이상은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독특한 지리환경과 옛 탐라국의 역사가 갖는 특이한 민속문화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한 관광성을 자랑한다. 지리적으로는 섬 한 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풍부한 동·식물을 거느린 산림과 계곡, 기암과 소연(沼淵), 기생화산과 분화구, 동굴과 초원 등 오밀조밀한 자연경관이 천혜의 아름다움을 빚어낼 뿐 아니라, 섬의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서 바닷가의 기암과 폭포, 백사장과 도서(島嶼) 등 해안 일대가 천연미의 절경을 이룬다. 이들 산과 바다는 종합적인 관광기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지역문화의 모습은 삼성혈(三姓穴)에서 비롯하는 옛 탐라국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유적들은 물론 토착산업과 민속, 그리고 정신문화에서 개성적인 관광성을 드러낸다.<sup>5)</sup>

### 3. 관광지로서의 제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이고, 특히 월드컵 이후 한국의 국가적 브랜드가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제주는 동북아 및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 4월에 발효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섬에 도시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처음인데, ‘한국 속의 이국’이 되기를 격려 받는 셈이다.(조선일보 2002. 04. 15)<sup>6)</sup>

제주가 진정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의 ‘이국성’, 즉 제주의 토속성이 남아있는 마을과 장소와 독특한 문화성을 지키고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관광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한다면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독특한 문화를

---

5) www.chejuinfo.com, 제주의 역사와 개요.

6) 정세욱, 21세기 제주도 비전과 발전전략, 21세기 제주도 발전위원회, 2002, p.17.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에 제주를 보여준다고 가정할 때, 떠오르는 장소는 제주민속촌, 천제연폭포, 삼굼부리 등 몇 개의 관광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보유한 엄청난 보물의 힘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고 있다. 제주도내에 집성하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민가, 제주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경관, 그리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등을 우수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4. 제주의 관광상품

제주도는 이미 한국의 10대 관광권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는 중요한 관광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관광산업이 지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자연자원에만 의존, 훌륭한 관광지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는 곤란한 일이므로 제주의 인문자원과 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미지 형성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표1)<sup>7)</sup>

현재 제주도의 관광상품을 보면 기존 제주이미지를 이용한 제품인 제주도 돌하르방과 기타 석제품 및 해녀조각, 천제연폭포, 용두암, 초가집모양, 산방산 등을 소재로 한 상품들이며, 특산물인 멥구슬과 띠를 재료로 지갑, 핸드백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섬주위 해변에서 생산되는 흑산호와 패각류 등도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농축산물 등의 원자재를 활용한 특산식품도 생산되고 있다.(표2)<sup>8)</sup>

제주의 관광상품은 일반상품에 비해 몇 가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행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반복구매가 일반상품에 비해 제한되어 있고 의도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보다는 비공식적인 구전효과가 관광상품의 제품 구입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S:Strength(강점) W:Weakness(약점) O:Opportunity(기피요소) T:Threat(위기요소)

8) 김상태, 제주도 외래 관광객 유치 촉진방안, 제주발전연구 3호, 1999, pp.123~140.



(표 1) 제주관광의 SWOT분석

<p><b>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특한 고유 문화성</li> <li>• 천혜의 자원성</li> <li>• 제주도의 해안 및 자연의 청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접근성 불편 및 비싼 교통비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li> <li>• 고가격 구조</li> <li>• 서비스 불량</li> <li>• 자원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b>W</b></p>
<p><b>O</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비중강화</li> <li>• 주변시장의 확대</li> <li>• 제주도내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 모습으로 새로운 개발대안 요구 증대</li> <li>• 도내 각종 개발계획 추진으로 외국인 투자여건 양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국(오키나와, 중국, 태국, 하와이)의 다양한 관광진흥정책 구사</li> <li>• 금강산 관광에 의한 시장 분산</li> <li>• 인천 용유무의도 개발 등 국내 유수 리조트 개발의 가속화로 경쟁시장 증대</li> <li>• 제한된 토지여건은 개발의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li> <li>•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b>T</b></p>

자료: 제주발전연구 제3호, p140

(표 2) 제주의 관광상품

구 분		중 요 내 용
특산품 판매		감귤, 옥돔, 제주돈육, 토종꿀, 표고버섯, 먹는 샘물
관광기념품	관광기념품	색자정낭필통/ 도자기, 팽귤지갑/ 모, 빨래방망이/ 목각 하루방매듭/ 목각, 초량말/ 목각, 흑산호목걸이/ 산호풀고래/ 석각, 송이석돌하르방/ 석각 연지방아/ 석각돌시계/ 석각, 갈천지갑/ 섬유, 여인상팬꽃이/ 수지 설화시리즈/ 수지, 초가약차/ 수지, 해녀꽃병/ 수지 청동재품/ 초경, 꿀채매듭/ 초경, 신띠지갑/ 초경
	제주향수판매점	제주향수 / 향수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점	2개업체 중 제주시 11개 업체 위치
면세점		등록업체 3개사

자료: 제주도 관광진흥과, 1998. 12. 31

세계 유수의 관광지는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한 연상을 통해

많은 잠재적 관광객을 유혹한다. 따라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 Ⅲ. 동자석(童子石)의 조형적 연구

#### 1. 제주도내의 민속(돌)자료

제주도는 돌이 많은 섬이다. 그런데, 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우선 돌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대부분의 건국신들은 돌 속에서 탄생했고, 높은 산의 돌계단을 오르면 돌로 만들어진 제단이 있고, 그 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큰 바위는 민간 신앙의 대상이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돌로 무덤(고인돌)을 만들었다. 그리고 돌하르방, 비석, 산담, 동자석 등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sup>9)</sup>

제주 사람들은 “돌에서 왔다가 돌로 돌아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도에 유난히 돌이 많게 보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도가 화산도라는 것과 관련된다. 온 섬이 화산재와 자갈에서부터 큰 암석에 이르기까지의 크고 작은 화산 쇄설물로 덮힌데다가 주민들이 그 암석을 생활재료로 곳곳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돌이 많은 섬에서 살아온 제주사람들이 이뤄낸 문화는 돌 문화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sup>10)</sup>

#### ■ 돌하르방 (사진1) • 민속자료 제2호

‘돌하르방’ 11)은 ‘웅중석’ • ‘우석목’ • ‘무석목’ • ‘벽수머리’ 등으로

9) 김순두, 제주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 /통권 103호, 1999, p.177.

10) 김성은, 전서, p.6.

11) 현재 경북궁 한국민속박물관으로 1기가 옮겨져서, 제주시에 21기, 대정읍에 12기, 표선면 성읍리에 12기가 보존되어 있다.

이 석상들이 만들어진 연대는 확실치 않다. 문헌상으로는 영조 30년(1754)에 김봉규 목사가 성문 밖에 웅중석을 세웠다는 기록이 처음이다. 웅중은 중국 진시황 때 완웅중을 말한 것으로, 웅중은 거인역사로 천명을 당할 힘이 있었으므로 진시황을 이로 하여금 흉노족을 멀리 격퇴시켰다. 그러나 웅중이 병사하자 진시황을 그의 모양을 만들어 아방궁 정면에 세웠다. 흉노족이 웅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하려 몰려왔는데 멀리서 아방궁쪽을 보니 거인 웅중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죽었다는 말이 헛소문이라 하여 흉노족이 도망갔다. 이때부터 웅중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수호신이라 하여

불러지고 있다. 돌하르방은 ‘돌로 만들어진 할아버지’ 라는 뜻으로써, 옛날에 성문 밖에 세워져서 성의 수호신 구실을 해 온 석조물이다. 또한 옛 탐라인의 불굴의 기상을 보여주고 있는 석상이기도 하다.



(사진 1) 돌하르방

이 돌하르방은 본디 성문 밖에 지켜 서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천만리 먼 곳까

그 상을 마을 어귀에 세우게 되는데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돌하르방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결같이 부리부리한 큰 눈매에 자루병 같은 코를 하고, 입술을 단정히 다문 얼굴에 감투를 썼고, 두손은 배에 나란히 모여 위엄 있게 보인다. 제주시와 성읍리의 것은 밑에 기석이 받쳐져 있다. 크기는 제주시의 것이 가장 커서 평균신장 181.6cm, 성읍리의 것이 141.4cm, 대정읍의 것이 136.2cm인데, 제주시에 있는 것이 더욱 위용있고 예술성이 짙게 조각되었다.

- ’ 돌하르방’이란 명칭은 ‘돌할아버지’의 제주도 방언으로 1971년 제주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이래 널리 쓰이게 되었다.
- ’ 돌하르방;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다. 또 이 돌하르방은 흔히 그 생김새나 감정 표현으로 보아 여상인지 남상인지, 또는 문관인지 무관인지를 구별하기도 하는데, 돌하르방이 반드시 성문을 지키고 서 있다고 하는 그 기능면에서 볼 때, 결코 여상이나 문관이니하는 확정은 내릴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상과 같은 구구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의 어디서나 두루 동칭되고 있는 명칭으로는 ‘돌하르방’이 가장 적합할 것이며, 기능 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남상이며, 더 좁힌다면, 무관이라고 말하며 틀림없을 것이다.

돌하르방은 제주 섬 주민이 역사적인 시련과 자연과의 투쟁에서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살아온 진취적인 인간상을 대변해 주고 있는 탐라 수호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라도 쏘아보는 듯한 야무진 눈망울을 지니고 있어, 그 표정으로써 부락에 침입하는 잡귀나 잡인을 쫓아내는 일을 맡아 왔음을 알 수 있다.

거추장스러운 병거지를 꼭 눌러 쓴 불룩한 뺨 옆에는 길쭉한 귀가 달려 있고, 두 손으로는 앞가슴을 부여잡고 있으며, 부릅뜬 두 눈은 한사람의 잡인도, 단 한가지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산같은 의지와 용맹으로써 앞을 쏘아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가우똥하게 고개를 약간 위로 쳐들고, 온 얼굴에는 미소마저 담백 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어 하는 표정으로도 볼 수 있으니, 보는 사람들에게 펍 익살스런 인상을 주기도 한다.

### ■ 영등하르방 (사진2)

‘영등하르방’이란 성산면 시흥리 바닷가에 우뚝 서 있는 돌하르방의 일종으로서, 먼바다 쪽에서 날아드는 모든 흉조로부터 마을사람의 살림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일종의 마을 수호신인데, 이는 심방의 무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등하르방과는 그 직능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예로부터 이 마을에는 먼바다로 부터 날아드는 재액이 수없이 많아, 이곳에 영등하르방을 만들어 세우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 쌓여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 흉조의 두드러진 한 예로서, 밤이 되면 먼바다로부터 자주 불꽃이 날아와 부락에 떨어졌으며, 이래서 그 불꽃을 맞은 집에는 어김없이 화재가 일어났고, 끝내는 망해 버리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마을사람들은 한 계교를 짜냈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방사법의 한 가지로써 바닷가에 돌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조각하여 세워진 것이라고 전한다.

이 영등하르방도 거옥대나 탑이나 돌하르방과 비슷한 직능을 갖고 있어서, 흉조로부터 마을사람들을 지켜주고 안심 입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 ■ 복신미륵 (사진3)

- 제주도 민속자료 제 1호
- 지정년월일 : 1971년 8월 26일

---

12) 우리 문화 이야기, 제주교육 박물관, 1999, p.32.

• 소재지 : 제주시 건입동 1257번지(주택가내) 제주시 용담1동 385번지(용화사 경내)

옛 제주성 바깥 동쪽, 서쪽에 두 미륵이 성안을 지키듯 서 있는 바, 이 두 미륵은 그 형상도 의연할뿐더러 이에 따른 속신 역시 유별나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

주민들은 이 두 미륵을 ‘복신미륵’ (동복신미륵·서복신미륵), ‘자복미륵’ (동자복미륵·서자복미륵), ‘자복신’ (동자복·서자복), ‘미륵’ (동미륵·서미륵), ‘돌미륵’ (동돌미륵·서돌미륵), ‘미륵부처’ (동미륵부처·서미륵부처)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 동복신미륵은 현재 개인 집 뒤뜰 7평쯤의 공간에 있고, 서복신미륵은 제주시 용담3동 속칭 동한두기의 사찰 경내에 있다. 동복신미륵이 세워진 동네일대는 예전에 ‘미륵밭’ 이라는 밭이었다. 서복신미륵은 사찰 경내에 있으므로 그 사찰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이 동서에 마주 보며 서 있는 두 복신미륵은 차양이 빙 둘러진 너부죽한 모자를 썼고, 커다란 귀, 우뚝한 코, 지그시 다문 입, 인자스레 내려다보는 눈매 등 자비로운 불상으로서 일품이다. 몸에는 예복을 걸쳤고, 두 손은 가슴에 정중히 모여졌는데, 그 소맷자락이 유난히 선명하다.<sup>13)</sup>

## ■ 거옥대와 까마귀 (사진4)

‘거옥대’ 와 ‘까마귀’ 는 마을 어귀에 세워짐으로써 그 마을 안으로 잡귀의 접근이나 침입을 막아주는 일종의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육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승과 솟대의 기능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거옥대는 마을 어귀에 세워, 마을 안으로 잡귀의 접근이나 침입을 막아주는 일종의 수호신 역할을 하며, 흔히 ‘거옥’, ‘극대’, ‘하르방’, ‘까마귀동산’, ‘영등하르방’ 등으로 불리운다. 육지에 있는 장승과 솟대의 기능에 비유될 수 있다 하겠다.

제주도에서는 지형상으로 보아 마을 어느 한 쪽이 공허하면 그 쪽을 통하여 재앙이 날아온다고 믿어, 그 쪽 공허한 공간에 거옥대 또는 까마귀를 세워 재앙의

---

13) 우리 문화 이야기, 전서, p.33.

침입을 막았다. 즉, 직·간접적인 손실과 재앙을 주는 액을 막아 인명·가축·재산  
을 보호하기 위한 민속 신앙이다.

거옥대는 모슬포가 상·하모리로 나뉠 당시 그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제작 연대를 조선 영조 25년(1749)으로 보고 있다.

이 석상은 키가 훌쩍한데, 다른 석물(石物)인 ‘돌하르방’ 이나 ‘동자석’ 과 비  
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에는  
테가 있는 모자를 쓰고 얼굴은 앞으로는 원형, 옆으로는 평면을 이루고 있다. 눈  
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반양각이고 눈썹과 입은 음각, 귀와 코는 양각으로  
되어 있다.

석상의 목은 매우 짧아서 없는 듯이 표현되어 있고 살짝 들어간 듯한 상태에서  
몸과 이어진다. 손은 배에 놓여 있는데,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손이 내려간 상태  
에서 주먹을 쥐고 있다. 옆과 뒷부분은 도포 비슷한 옷을 입은 것처럼 되어 있고,  
가슴 한복판에는 사각 형태에 ‘간(干)’ 자가 음각되어 있다.<sup>14)</sup>



(사진 2) 영등하르방

(사진 3) 복신미륵

(사진 4) 거옥대와 까마귀

거옥대의 모양은 마치 곶배(고무래)를 거꾸로 세워 놓은 것과 흡사한 것이요,  
까마귀의 모습은 긴 장대의 중간 부분에 나무로 만든 까마귀를 꿰뚫어 세운 것과  
도 같은 것이다. 재액을 불러일으켜 준다고 믿는 불길한 새인 까마귀를 화살로  
쏘아 꿰뚫어 잡아 놓음으로써 재액을 미리 예방하는 격이라고 믿는데서 연유한

14) [www.namcheju.net](http://www.namcheju.net)

다.

지금도 남아 있는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애월면 곽지리의 거옥대와 제주시 이호동의 까마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곽지리의 경우는 이 마을의 위쪽 동네 ‘도노미’ 라는 부락쪽으로 가는 길가에 서있는 것인데, 높이 약 3m나 되는 나무로서, 마침 곶배를 거꾸로 세워 놓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sup>15)</sup>

### ■ 지석묘(고인돌) (사진5)

- 위치 : 남제주군 성산읍 신산리 1539-1번지 (속칭 : 들선들)
- 시대 : 탐라시대 전기

지석묘 즉, 고인돌은 고대인의 무덤으로 제주특유의 현무암괴석을 지상에 받친 것으로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산리 해안 일주도로에서 내륙으로 2km 올라간 지점으로 해발 159m의 독자봉 전면의 소나무가 밀집된 완만한 산록부에 위치해 있다. 동지석묘는 남북이 장축 방향으로 놓인 길이 210cm, 폭 145cm, 두께 20cm이며 상석윗면이 비교적 고른 장방형에 가까운 오각형 상석을 가졌으며 그 상석이 동북향에 길이 85cm, 폭 55cm, 두께 22cm의 대형 판석상 지석이 고이고 있으며, 동향으로는 자잘한 괴석상지석이 둥글게 돌아가면서 내부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고이고 있다. 또한 남서향은 지석이 없이 지면에 닿아 있다. 이러한 지석고임방식으로 인해 상석 자체가 북동쪽으로 25도정도 다소 틀리워져 있다. 현재 지석묘와 동일석질인 할석이 상석의 동북향에 3개 이탈되어 있다. 동지석묘 조사시 동향 지석근처에서 상평통보 1점이 수습되었다.

### ■ 창천지석묘 1호(기념물 제2-24호)(사진6)

- 지정번호 : 제주도가념물 제2-24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30일
- 소재지 :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966-1번지

해안과는 1km 거리에 있는 이 지석묘는 경사면이 심한 두개의 밭 경계에 있다. 전면에 높은 지석이 수평으로 높게 고여 있으며, 상석 전체모양은 장방형이다. 상

---

15) 우리 문화 이야기, 전서, p.33.



석은 장축길이 250cm, 단축길이 235cm, 두께 41cm로 장축 방향은 북서쪽이다. 지석은 북향, 남서향, 동서향에 각각 고였는데 47×22×12cm인 북향 지석은 뒷면 상석이 인위적으로 채취되어 현재 지석고임에서 다소 벗어나 땅속 깊숙히 박혀있다. 다른 두 군데는 잘 정선된 판석상의 지석을 고였는데 각각 93×98×15cm, 92×95×15cm이다. 현재 남동향은 장축방향과 일치하여 지석없이 개방되어 있는데 석실내부 지표 아래 50cm 지점에는 배갯돌로 보이는 판석이 놓여 있다. 대체로 매장시설은 지상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기원전후시기에 해당하는 적갈색토기 파편 몇 점이 발견되었다.<sup>16)</sup>



(사진 5) 지석묘 (고인돌)



(사진 6) 창천지석묘

## ■ 선돌 (사진7)

‘선돌’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길쭉한 자연석이나 그 일부를 가공한 큰 돌을 어떤 믿음이나 대상물이나 특수목적을 가지고 세운 돌기둥의 유적을 말한다. 입석·삿갓바위·입암이라고도 한다. 고인돌·열석과 함께 대표적인 거석문화의 하나이다.

서부 유럽 등 외국에도 분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지방에 따라 할머니탑·할아버지탑·할미바위·장수지팡이·구지바위·돌장승·쇠뿔미륵·수구막이·수살장군·미륵부처등으로 다

16) [www.namcheju.net](http://www.namcheju.net)

양하게 불린다. 현재 전해지는 선돌에는 제사신앙이 수반되어 있어 신격화되기도 하고, 또 특이한 전설 등을 지니고 있어 부락민의 절대 불가침의 대상으로 보호 받기도 한다.

### ■ 돌담 (사진8)

제주도에는 돌이 많다. 길옆에도 돌이요, 들이나 밭둑에도 돌이요, 바닷가 어느 곳에도 돌은 쌓여 있다. 뿐만아니라 집을 짓는데도 돌, 울타리를 쌓는데도 돌, 밭과 밭의 경계를 갈라놓는데도 돌을 쌓았다.

이처럼 밭이나 집이나 울타리를 쌓는데, 그 높이는 대개 1~2m정도이다. 그러나 그 유래를 따져 보면, 돌담은 간단히 이루어진 일 만은 아닌 듯 싶다.

‘동문감’ 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제주도는 난석이 많고 땅이 건조하여, 본시부터 논이 없고 다만 밀, 보리, 콩, 조, 따위만 나는데, 그나마 옛적엔 내밭에 네밭의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강폭한 집에서 나날이 남의 것을 누에가 뽕잎 먹듯 침범하므로, 모든 힘없는 백성들이 심히 괴로히 여기더니, 김구란 이가 관관이 되어 온 뒤에 백성들의 절고를 듣고 드디어 돌을 모아 제 밭에다 담을 두르게 하니, 경계가 분명해지고, 그로부터 백성들이 편하게 되었다. 이 기록을 그대로 따르다면, 김구는 고려 의종 때의 사람이므로 약 800여년 전에 이미 이곳의 돌 정리사업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도민은 이 돌로써 울타리를 높이 쌓았기 때문에 방풍벽은 물론이요, 한라산에 방목중인 그 많은 마소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 ■ 묘비 (사진9)

제주도민들 역시 선묘에 비석을 새겨 세우는 것을 조상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석은 반드시 묘의 제단 위에 세우되, 신단(묘의 주위를 둘러 쌓아올린 돌담) 울타리에 내어놓은 신문과 평행된 위치에 세우는 것이나, 이때 망인이 남자일 경우는 왼쪽에, 여자일 경우면 오른쪽에 세운다. 망인 부부를 합장으로 묘를 썼을 때에 비석은 묘 앞에 제절(제단)의 중심부에 세우게

된다. 그 글자에 있어서도 큰 글자는 전면을 향하게 하나, 부장(쌍묘)의 경우에는 두 묘의 가운데에 비석을 세우고 큰 글자는 전면을 향하게 한다. 그런데 보통 외로 묘를 썼을 때에는 비문의 큰 글자는 제절에서 전면을 향하게 세우나, 작은 글자는 한쪽 산담과 가까운 거리에 세우게 된다.



(사진 7) 선돌



(사진 8) 돌담



(사진 9) 묘비

## ■ 방사탑 (사진10)

‘방사탑’은 마을 어느 한 방위에 어떤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 지형이 비교적 허(虛)하다면 그러한 허한 방위를 막아야 마을이 평안하게 된다는 속신에서 쌓아 올린 탑이다. 탑을 쌓아 올릴 때는 그 속에 밥주걱이나 술을 묻고, 그 위에 돌담을 사람의 키 높이 이상 쌓아야 된다는 것이다. 밥주걱을 묻는 이유는 술의 밥을 굵어 담듯이 외부의 재물을 마을 안으로 담아 들이라는 뜻이요, 술을 묻는 것은 술은 무서운 불에도 끄덕 없이 이겨내는 것이니 마을의 재난을 방액해 달라는 뜻에서 이루어진 유감 주술적인 사고다.

방사탑은 속칭 거옥대, 거옥, 거왁, 극대라고 하며, 어떤 마을에서는 탑과 다소 다른 의미로 구분하기도 한다. 거옥대 역시 탑과 같은 동기에서 세워진다.

영평하동의 경우 풍수 지리적으로 남북이 허하다 하여 남대북탑(南垓北塔), 즉 남쪽에는 거옥대를 세우고 북쪽에는 방사탑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영평하동의 거옥대는 소위 제주 돌하르방류에 속하는 석상을 돌로 쌓은 대 위에 만들어 세웠고, 탑은 다른 지역의 것과 비슷한 것인데 없어졌다. 이런 경우는 조천읍 신흥리의 영등하르방과 유사한 것이다. 신흥리는 탑 위에 돌하르방을 세워 영등하르방

이라 부르기도 하고, 보통 거옥대라고도 부른다. 또 제주시 이호동이나 북제주군 한림읍 광지리 등 다른 마을에서는 거옥대를 나무로 만들어 세웠다고 하는데 비바람에도 좀처럼 썩지 않는 비자나무나 참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육지부의 장승에는 나무로 만든 목장승도 있고 돌로 만든 석장승도 있다. 마을 입구나 마을 경계에 방액이나 마을의 수호를 위하여 깎아 세웠다. 제주도의 방사탑과 거옥대도 육지부의 장승, 솟대가 가지는 방액·방사의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 ■ 정주석·정낭 (사진11)

제주도는 삼다. 삼무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다. 삼다는 바람, 돌, 여자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무는 거지없고, 대문없고, 도둑이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인심을 나타낸 것으로 이런 조상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하겠다.

옛 제주 도민들은 대문 대신 긴 나무를 걸쳐 놓았는데 이를 정낭이라고 하며, 정낭 하나를 걸쳐놓으면 잠시 집주인이 없는 동안 마소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고, 두 개를 걸쳐놓으면 어른은 없으나 아이들은 근처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며, 세 개를 걸쳐놓으면 주인이 출타하고 없다는 표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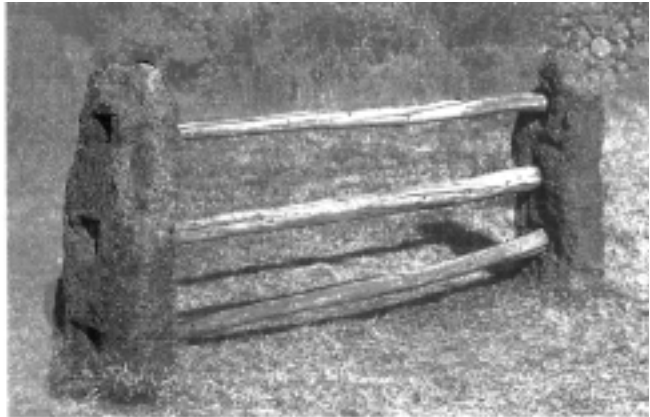
그러나 정낭을 여럿 걸쳐 놓으면 출입을 차단할 수도 있겠지만, 한둘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출입을 온전히 가로 막을 수는 없다. 이를 뛰어 넘어서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속신(俗信)이 깃들어 있으므로 정낭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정주석이나 정낭은 실용적인 나무나 돌기둥이라는 뜻보다도 초자연적 신비력이 깃들어 있는 성물(聖物)로 믿어 왔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성문에 정낭이 걸쳐졌었고, 돌하르방이 세워진 다음에도 그 기석(基石)을 정주석처럼 여겨서 정낭을 걸쳤던 게 아닌가 추측하는 것은 그 실용성이 아니라, 속신이 깃든 성물로 보는 시각이다.

정낭을 걸쳐 놓는 것을 정주석이라고 하는데 돌로 만들어진 것과 나무로 된 것

도 있어 정주석과 정주목으로 같이 불리우고 있으며, 길이는 약 90cm 정도가 된다.<sup>17)</sup>



(사진 10) 방사담



(사진 11) 정주석과 정남

## 2. 제주의 동자석

제주도 민기 중에서는 아이의 형태를 한 석상이 세워져 있음을 알수 있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돌이 많아 동자상(童子像), 돌하르방, 받돌담, 봉수대 등 석상문화(石像文化)가 잘 발달되어 있다.<sup>18)</sup>

동자석은 무덤 앞 좌·우편에 마주보거나 나란한 세워져 있는 석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터를 지키는 지신이라 말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동자상(童子像), 지신상(地神像), 두석, 자석(子石)으로 불리는 이 동자석은 제주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지난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조사된 제주대학교 박물관 자료에 의하면 250여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1000여개가 도내(표3) 서민의 무덤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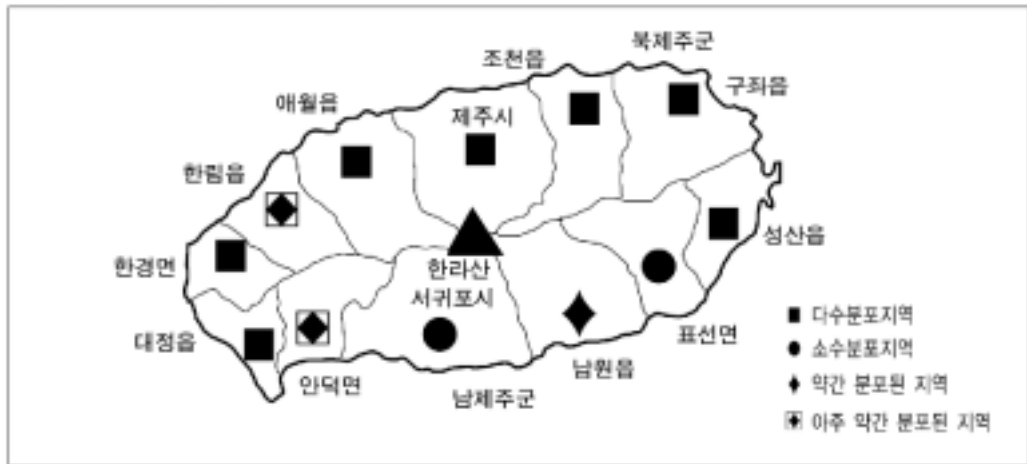
그 유래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조선시대 왕실무덤에 세워진 문신석(文臣

17) 우리 문화 이야기, 전서, p.214.

18) 강창언, 제주의 동자석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10, 1990, p.143.

石)과 무신석(武臣石)의 기능이 민간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지금의 ‘망주석’ 또는 ‘동자석’으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남방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거석석상문화(巨石石像文化)는 북방농경문화와 만나면서 특별한 조형양식으로 발전하였다.

(표 3) 제주도 전역 동자석 분포도



특히 제주도와 같은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만나는 도서지역은 돌하르방과 같은 석상문화를 잉태하게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즉, 돌하르방의 유래와 연관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제주도 돌하르방이 조선시대에 성문 앞에 세워졌다는 기록과 석상의 얼굴이 거의 남방계 얼굴의 특징인<sup>19)</sup>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가 강조되어진 부분이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19) 남태평양의 여러 섬 지방과 또 가까이 있는 한반도 육지부에서도 몇몇 군데서 찾아볼 수 있기는 하나, 제주도의 이 돌하르방만은 다른 지방의 그것과는 견주어 그 형태에서부터 조각 솜씨나 감정 표현 면에서 유달리 흥미로운 존재임을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누쿠하이바, 타히티, 피지, 이스터 등의 여러 섬에서, 또한 가까운 육지부에서는 경상남도 동영의 것과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 지석탑, 사우인석상을 비롯한 원, 운봉, 강당리 등의 인석상, 전라남도 나주 마산리와 불회사 입구의 석장승과, 그리고 경상북도 외동면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인 또 고려 공민왕릉 앞의 문인상들도 인석상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강직하고 운유하고 해학적인 모든 표정을 한 얼굴 한 몸에 담아 지니고 있다는 점으로는 이 '돌하르방'; 이 다른 석상들에 비해 아주 다른 값어치를 지닌 것들임을 깨닫게 한다.

이 석상들은 기공이 아주 많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있어 투박하면서도 꾸밈이 없고 순박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제주의 석상들은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한정된 조형미술 조각품이자 세계 속의 독특한 제주만의 민족예술 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 동자석은 영혼을 모시는 신앙적인 측면도 있으나 미술학적 측면에서도 글자 그대로 아이 형상<sup>20)</sup>을 다루는 미적 감각과 천의 표정 등은 타석상보다 뛰어남을 느낄 수 있다.

### 3. 동자석의 배치와 기능

조상을 숭배하고 주술적 의의인 동자석은 제주도 전 지역의 무덤에서 간혹 보여지는데 동자석이 있는 무덤 몇 십기를 종합해 본 바로는 규모가 꽤 큰 무덤에 동자석이 세워졌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벼슬이 있고 부유한 층의 사람의 무덤에 비석과 함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동자석과 문·무신석, 망주석을 나란히 세워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보호하며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원도 의미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동자석은 묘의 앞에 좌우로 한 쌍이 놓여졌으며 권력과 부에 따라 문신석·무신석, 망주석 한 쌍이 있는 것(사진12)과 망주석과 있는 것(사진13), 비석과 같이 있는 것(사진14), 동자석만 있는 것(사진15)으로 배치되었다.<sup>21)</sup>

### 4. 동자석의 분류

동자석을 역사적, 학술적으로 분류 된 것은 없으나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동자석을 보면 크게 남성(사진16)과 여성(사진17), 수호신 동자석(사진18), 시중꾼 동자석(사진19), 기타 동자석(사진20)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0) 불교에서는 동자(童子)의 의미를 출가하기 이전의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지칭한다. 또한 예배와 제사의 주대상 인물을 보좌하는 존재로 기능을 한 것처럼 동자석은 그 무덤의 주인 영혼을 위로하거나 묘지의 수호신 기능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21) 김성은, 전서, p.16.

동자석은 얼굴에 이목구비가 있는데 눈이 —자형이면 입도 —자 형식이고, 눈이 타원형이면 입도 타원형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또한 음각이면 음각(사진21),



(사진 12)



(사진 13)



(사진 14)



(사진 15)

양각이면 양각(사진22)으로 처리하는 일치성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동자석은 선의 흐름, 천진무구한 표정, 등신(等身)의 비율 외에도 서민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얼굴을 표현하는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작품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돌을 이용할 줄 아는 슬기도 엿볼 수 있다. 제작과정의 옛 어른들의 심상(心想)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제주의 동자석은 약 1000여년 전에 몽고의 침략을 받으면서부터 돌하르방이나 동자석이 생겼다고 보듯이





(사진16) 남성형 동자석



(사진17) 여성형 동자석



(사진18) 어린아이형 동자석



(사진19) 수호신형 동자석



(사진20) 세종군형 동자석



(사진21) 음악형 동자석



(사진22) 양각형 동자석

현재 존재하는 동자석들은 약 수 백년 전부터 무덤 앞, 좌, 우에 마주보거나(사진 38, 40) 나란히 서 있는(사진36, 37) 석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형적으로 분류해 보면, 죽은자의 시중을 들기 위해 살았을 때 좋아했던 술, 떡 같은 음식물이나 꽃, 창 같은 상징물(사진24, 26)을 들고서 봉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해탈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웃으며 서있는 형태(사진35), 언제나 술잔에 술 따르는 듯한 형태(사진33, 34), 무릎 꿇고 앉아 공부하는 형태(사진30) 등 모습과 손에 잡고 있는 물건들도 다양하다. 다산을 기원하고 번창을 상징하는 애기의 모습(사진39)을 띄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장수를 표현하는 창 따위를 조각하여 후세들의 덕을 기원(사진37)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앙적 믿음 때문에 낙태가 잘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녀자들이 동자석의 코 부위를 쪼개어 삶아 먹으면 아들을 잉태한다는 믿음도 있었다. 그래서 어떤 동자석 중에는 코가 잘려나간 것(사진25, 39)이 많다.<sup>22)</sup>

동자석의 크기는 약 33~96cm정도이다. 이처럼 작은 키에 과감한 생략과 거칠게 쪼아내는 정 다듬질은 제주의 현무암으로 최고의 걸작품을 연출해 냈다고 볼 수 있다. 작은 키의 크기로 제작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제주도의 바람을 이겨내지 못해 키가 작다는 것을 옛 선조들은 미리 알았는지 마을과 무덤을 지키는 지신인 동자석의 크기도 아이의 크기를 선택했으리라 보고 있다.

---

22) 췌 △ | 𐄂 媿○꽃 𐄂 𐄂○p.22.



(사진 23)



(사진 24)



(사진 25)



(사진 26)



(사진 27)



(사진 28)



(사진 29)



(사진 30)



(사진 31)





(사진 32)



(사진 33)



(사진 34)



(사진 35)



(사진 36)



(사진 37)



(사진 38)



(사진 39)



(사진 40)



(사진 41)



(사진 42)

## IV. 캐릭터 구성요소에 따른 이미지 분석

### 1. 동자석의 구성요소로서의 분석

제주도의 동자석은 그 조형성이 독특하고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조형물이다. 수많은 동자석이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하르방의 명성에 가려져 동자석의 그 의미와 조형적 연구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캐릭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정립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캐릭터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 캐릭터가 앞으로 지니고 있는 효과와 마케팅 전략으로써 의도하는 효과에 맞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메시지가 전달 할 수 없고 동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1. 동자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제주이미지 표현에 적절한가?
2. 동자석을 활용한 캐릭터디자인의 표현은 관광상품으로 가능한가?
3. 관광상품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으로서 가능한가?

### 2. 동자석의 이미지로서의 분석

#### 1) 동자석을 이용한 캐릭터디자인 계획

오늘날의 캐릭터디자인은 하나의 상품으로서 뿐 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 민속, 역사 등을 이해시키고 기억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써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갖추어야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시작품은 앞서 고찰한 동자석의 유물자료를 참고, 응용하여 전통적인 형태, 문양, 색채 등의 감각을 살려 기능적이며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제주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디자인의 이미지는 그 지역의 독특한 상징적인 소재 등이 첨가되어야만 가치를 지니게 되므로 동자석의 해학적인 이미지에 나타나는 감각을 최대한



으로 살려 캐릭터디자인으로서의 상품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제주에는 독특한 지방문화가 있다. 제주의 전통마을과 돌하르방이 있고, 제주 목판아, 오현단 성지가 있다. 이런 제주문화는 이국적 문화에 심취하는 유럽관광객들에겐 더 할 수 없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관광자원이다.

벨지엄의 수도인 브뤼셀(Brussel)시의 중심가 한 모퉁이 벽에는 ‘오줌싸는 어린이상’ 이 있다. 별것이 아닌데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려고 몰려온다.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Bern)시에는 도로 가운데에 ‘어린이 석상’ 이 있다. 별것은 아니지만 밤에 멋지게 조명을 하여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제주의 문화유산은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sup>23)</sup>

현재 국내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문화산업화 방안으로 캐릭터산업, 지역공예품의 산업화방안 등이 심도 있게 연구·개발되어지고 있다.

(2) 앞서 고찰한 동자석의 기본 내용에 충실하여 디자인한다.

-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상품화할 것인가? 제주만의 특색과 문화적 성격이 강한 제주도 동자석을 이미지화 하여 이를 관광상품과 그에 따른 캐릭터디자인 전반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관광상품 개발로 경제·관광홍보 측면에서의 소정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3) 제주 관광기념으로서의 오랜 인지성을 두며 디자인한다.

-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문화적 관광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한다.

## 2) 캐릭터디자인 요소로서의 분석

동자석을 활용한 캐릭터사업은 제주관광의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제주 지역사회의 전통계승과 지방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적인 목적이 동시에

---

23) 정세욱, 전서, p.17.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다양한 시각매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광상품, 인쇄, 영상매체의 적용성 테스트.
- ② 캐릭터개발과 더불어 네이밍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 각종 응용아이템 적용검토.

캐릭터산업은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차원에 머물지 않고 캐릭터의 상품화를 통해 수익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캐릭터는 특정한 인물이나 대상의 특징을 순간적으로 포착해 익살스럽고 단순하게 표현한 것을 말한다. 마스코트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도형적 의미에 머물지만, 캐릭터는 상업적 성격이 짙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인식돼 활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다.<sup>24)</sup>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교단체 및 인기인들을 이용한 캐릭터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국내 캐릭터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각 지방의 무형문화재들을 이용한 캐릭터사업이 활발하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캐릭터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내 고장을 적극 홍보하고 캐릭터 상품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sup>25)</sup>

■ 국내 캐릭터 개발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 사업<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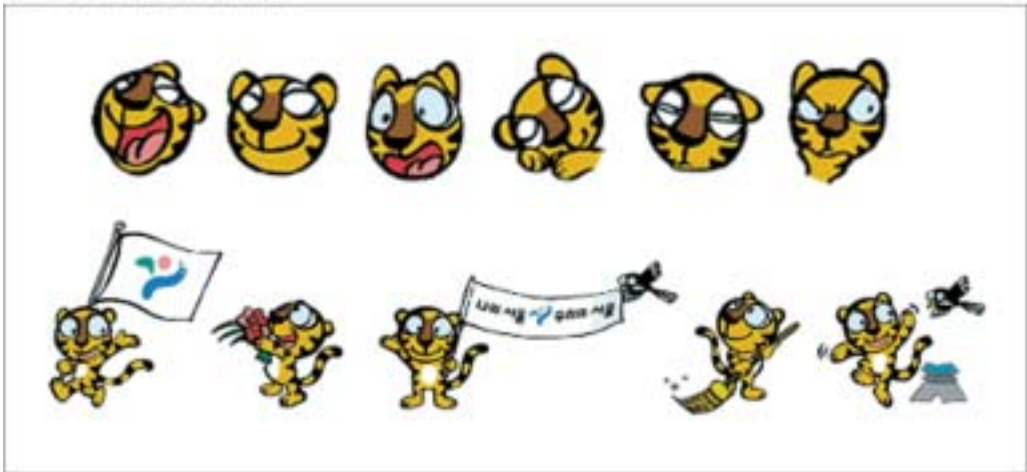
서울시 캐릭터 ‘왕범이’ (표4), 경기도 과천시 캐릭터 ‘토리와 아리’, 대전광역시 캐릭터 ‘한꿈이’, 남원시 캐릭터 ‘춘향과 이도령’, 포항시 캐릭터 ‘연오랑 세오녀’, 양주군 ‘임격정’, 강원도 영월군 ‘소년 김삿갓 지키’, 태안의 지역 특산물인 ‘꽃게’ 퇴계원 캐릭터 산대놀이 ‘타리’, 전라남도 장성군 캐릭터 ‘홍길동’ 등(표5)

24) 박노석 외, 지역 특성화를 위한 디자인적 접근 방안/테마공원을 중심으로, p.44.

25) 김훈, 캐릭터사업을 위한 안동 하회탈의 시각화, 한국디자인학회.1999.8, p.205.

26) www.iwebdy.net

(표 4) 서울시 '왕범이' 캐릭터



(표 5) 지방자치단체 캐릭터



(2) 단체의 캐릭터 사업

안동 MBC의 하회탈을 캐릭터로 만든 ‘물돌이네’ (표6),<sup>27)</sup>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캐릭터 ‘하비’ (표7),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캐릭터 ‘왕돌이’ (표8)<sup>28)</sup>등

(표 6) 안동문화방송 ‘물돌이네’ 캐릭터



(표 7)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하비’ 캐릭터



27) [www.andongmbc.co.kr](http://www.andongmbc.co.kr)

28) [www.jdcenter.com](http://www.jdcenter.com)

(표 8)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엠블렘과 '왕돌이' 캐릭터



### 3. 제주지역의 캐릭터 실태 분석

#### 1) 제주도 캐릭터

제주도는 21세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 제주상징인 심벌마크 및 그와 연관된 주요부분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캐릭터를 제작하였다.<sup>29)</sup>

- 메인 캐릭터 (표9)
  - 돌과 바람을 소재로 하여 전통적인 느낌을 현대적으로 의인화한 캐릭터로써 제주의 메시지를 보다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캐릭터에 이름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보는이로 하여금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메인 캐릭터 응용편(표10)과 상품화 캐릭터(표11)는 메인 캐릭터를 보조하고 상품화되는 캐릭터로써 ‘물의 요정’, ‘하르방’, ‘해녀’, ‘바다의 정령’ 등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제주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친근하게 나타내고 있다.

29) www.jeju.go.k

(표 9) 제주도 메인 캐릭터



(표 10) 제주도 메인 캐릭터 응용편



(표 11) 제주도 상품화 캐릭터



## 2) 제주시 캐릭터 (표12)

탐라시조 개국영지로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제주시의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내용으로 지구촌 전세계를 누비고 다닐 캐릭터 ‘돌이와 멍이’는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제주시민의 삶의 혼이 묻어 있는 제주 삼다(돌·바람·여자)중의 하나인 강인한 개척정신을 이미지화한 돌을 컨셉으로 삼아 아름답고 감쪽하게 의인화하여 제주시의 홍보사절단, 토속관광 상품에 활용되고 있다.<sup>30)</sup>

(표 12) 제주시 ‘돌이와 멍이’ 캐릭터



30) www.jejudi.go.kr



###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면세점) 캐릭터 (표13)

- **메인 캐릭터** (하비 ; 하르방)

- 제주하면 돌이고 돌하면 하르방이므로 제주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누구나 쉽게 제주도를 연상할 수 있는 소재이며 귀여움을 첨가하여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 파스텔 톤의 색채는 부드러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며 하르방의 밝은 미소는 제주인들의 친절과 포근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 신비함과 깜찍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다.

- **서브 캐릭터** (다비 ; 해녀)

- 제주도의 삼다(돌·바람·여자)중의 하나인 여자를 소재로 만든 캐릭터이다. 현재 해녀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므로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이다.
- 치열한 삶을 사는 해녀들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신선하면서도 강한 느낌을 준다.
- 가늘게 찢어진 눈은 우리네의 소박한 생김새를 반영하고 있으며 은근한 미소는 힘든 삶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해녀들의 여유를 표현하고 있다.

- **서브 캐릭터** (보비 ; 동자석)

- 제주 문화중의 하나인 무덤을 지키는 돌을 캐릭터화 하였다. 특이한 소재를 사용하였으므로 보는 이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다.
- 제주의 독특한 문화적 향취와 신비하면서도 소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속세를 초월한 듯한 동자석의 평화로운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에 작은 행복을 전해주는 듯하다.

- **서브 캐릭터** (루비 ; 한라산 노루)

- 제주의 대표 산 한라산을 홍보하기 위한 캐릭터이다. 이 캐릭터는 제주의 깨끗한 자연을 널리 알리고 한라산의 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전체적으로 쓰인 노란 색채는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윙크를 하는 듯한 노루의 귀여운 표정은 귀여움과 깜찍함을 더한다.

- 맑고 아기자기한 한라산의 순수한 미를 널리 알리기에 적합한 캐릭터이다.

- **서브 캐릭터** (도비 ; 옥돔)

- 제주의 바다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특산물 홍보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의 옥돔은 이미 내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다시 한번 제주 옥돔의 우수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독특한 소재가 잘 다듬어져 귀여운 느낌을 주는 편안한 캐릭터로 재탄생 되었다.

- 커다란 두 눈과 두꺼운 입이 코믹함과 귀여움을 더하며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sup>31)</sup>

(표13)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하비' 캐릭터



#### 4)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왕돌이』 캐릭터

31) [www.jdcenter.com](http://www.jdcenter.com)

- 엠블럼(표14)은
  - 삼다도 : 돌(하늘색 원), 여자(여인의 실루엣), 바람(주홍색 곡선)
  - 섬 : 타원의 바탕 형태와 백사장의 이미지
  - 청정하늘, 청정수역 : 타원의 청색 바탕색상
  - 행사 개념의 시각화 : "섬(자연, 문화)과 인간의 만남"을 인간의 얼굴로 형상화
  - 행사장 전체조감도 형태와 이미지 연계 : 타원의 공간은 제주도 섬의 형태를 상징화
  - Logo 서체 : 따뜻한 인간미의 정서와 섬 문화와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 
- 캐릭터디자인(표14)은
  - 제주도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돌하르방을 축제의 캐릭터로 정하여, 돌하르방의 외형적인 면(둥그랗고 큰 눈, 커다란 코 등)을 대표 이미지로 표현 하였으며, 캐릭터로서의 성격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익살스럽고 역동적이 이미지 부각시켰다.<sup>32)</sup>

(표 14)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엠블럼과 '왕돌이' 캐릭터



#### 4. 분석 결과

32) www.chejuinfo.com

캐릭터산업은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차원에 머물지 않고 캐릭터의 상품화를 통해 수익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의 문화자원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

- 지역성 : 지역의 특수성 반영
- 역사성 :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의 내재
- 접근성 :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과 접근의 용이성
- 원형의 이용 : 원형 자체의 이용 및 응용
- 자연 친화성 : 자연적인 자원의 동시적 활용<sup>33)</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의 제주도의 소재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과 지역적 독창성을 차별화 전략으로 삼은 캐릭터디자인 개발은 관광상품의 품질 향상과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제주도 이미지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이미지로 개선한다면 제주도 관광상품의 판매촉진 및 더 나아가 관광 산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1) 개성을 지닌 상징으로서의 캐릭터

사물의 성격, 특징 등에 강한 개성을 갖고 이를 관광상품 서비스에 이전시켜 관광객에게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강한 개성과 이러한 캐릭터의 사용은 주목, 인지, 이해, 기억 등 인지적 효과와 친근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효과, 그리고 캐릭터의 개성을 통해 제주도의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거나 부각하는 이미지 효과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다양한 효용을 갖는다.<sup>34)</sup>

바람직한 캐릭터는 기능적 요소와 조형적 요소 양자를 모두 충족한다.

## 2) 기능적 요소로서의 캐릭터

---

33) 박노석 외, 지역 특성화를 위한 디자인적 접근 방안/테마공원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1999, p.42.

34) 하봉준, 캐릭터 산업, 캐릭터 마케팅, 이미지 차별화 수단에서 상품화로 전개/광고정보, 1995, p.37.

제주도의 특성과 이미지를 잘 나타내어 독창성, 친근감(표15)이 있다.

첫째로 독창성은 기존의 캐릭터들과 구별되는 특성과 시각요소를 지녀야 한다는 것으로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 캐릭터의 친근감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캐릭터의 이미지는 동일해야하여야만 관광객이 캐릭터를 접할 때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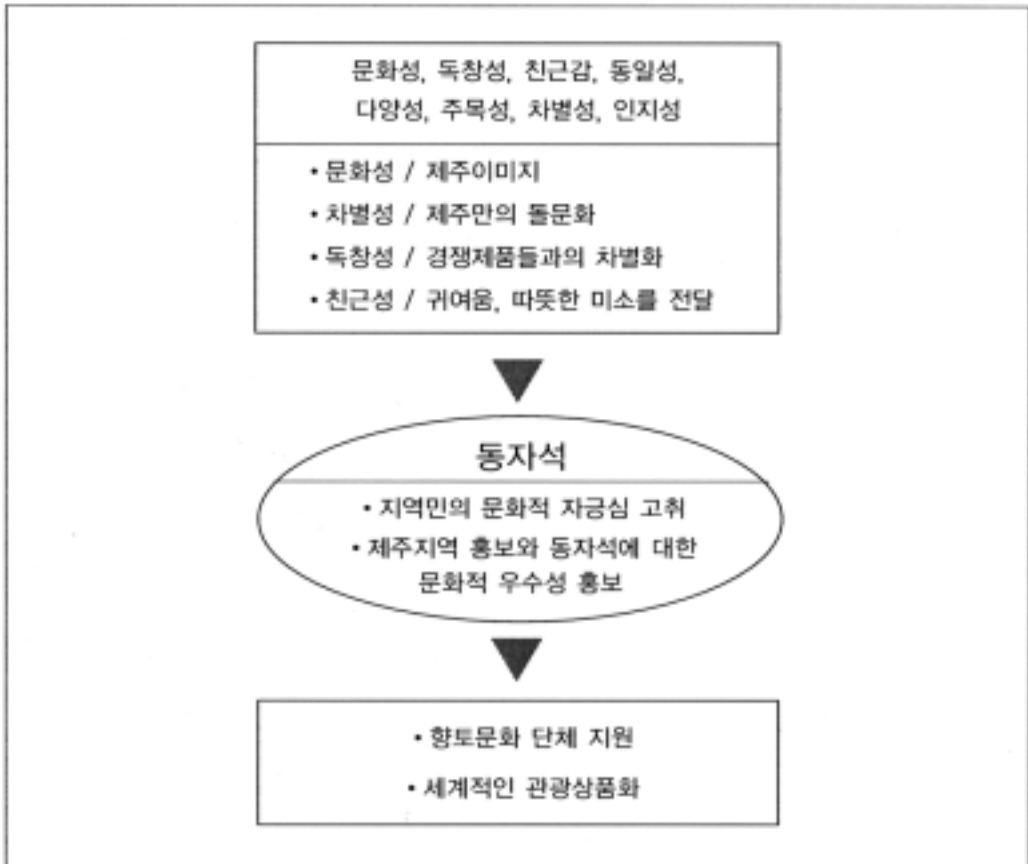
(표 15) 제주에서 사용중인 캐릭터



## 5. 디자인 추진 방향

캐릭터디자인은 어떤 내용인가?의 컨셉(표16)을 분명히 해야 하고, 캐릭터의 지명도, 호감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역간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인상적이고도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표 16) 디자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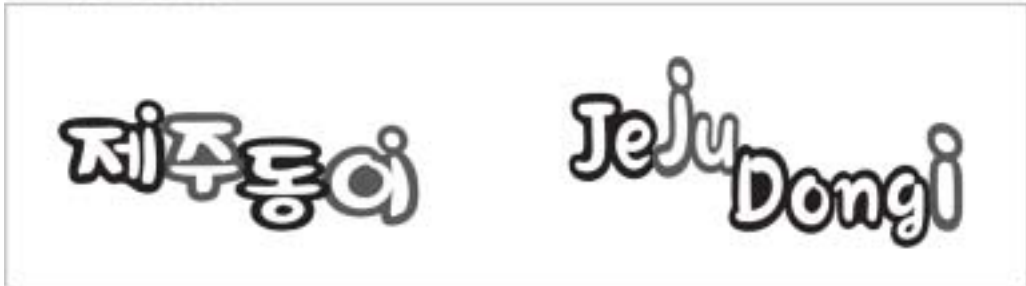


동자석의 조형은 제주도의 상징성이 강하며 입체적인 형태가 특징이다. 특히 다양한 표정을 연출할 수 있도록 조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자석의 특징은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동자석의 평면적인 캐릭터로 시각화하는 과정에 있어 동자석의 형태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수호신,

시중꾼 등 각 형태적 특성을 기본형으로 현대적인 감각의 표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형태의 시각화 과정에서 동자석의 고유한 형태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자료를 기초로 지역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캐릭터 네이밍은 ‘제주동이’ (표18)로 정하고 캐릭터디자인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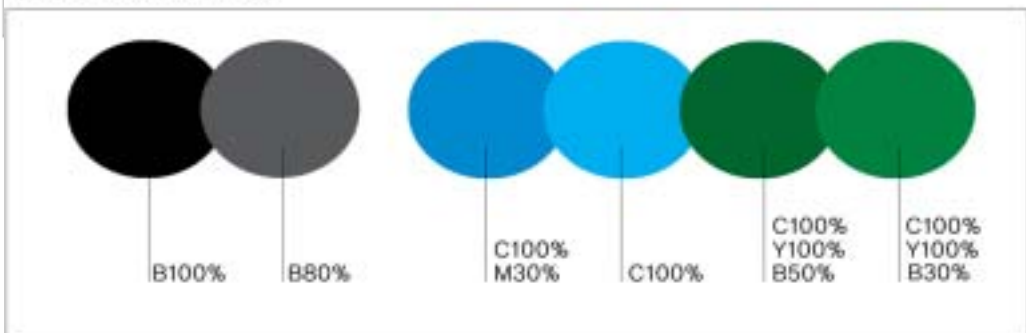
(표 18) 캐릭터 네이밍



(표 19) 칼라 로고



(표 20) 네이밍 기본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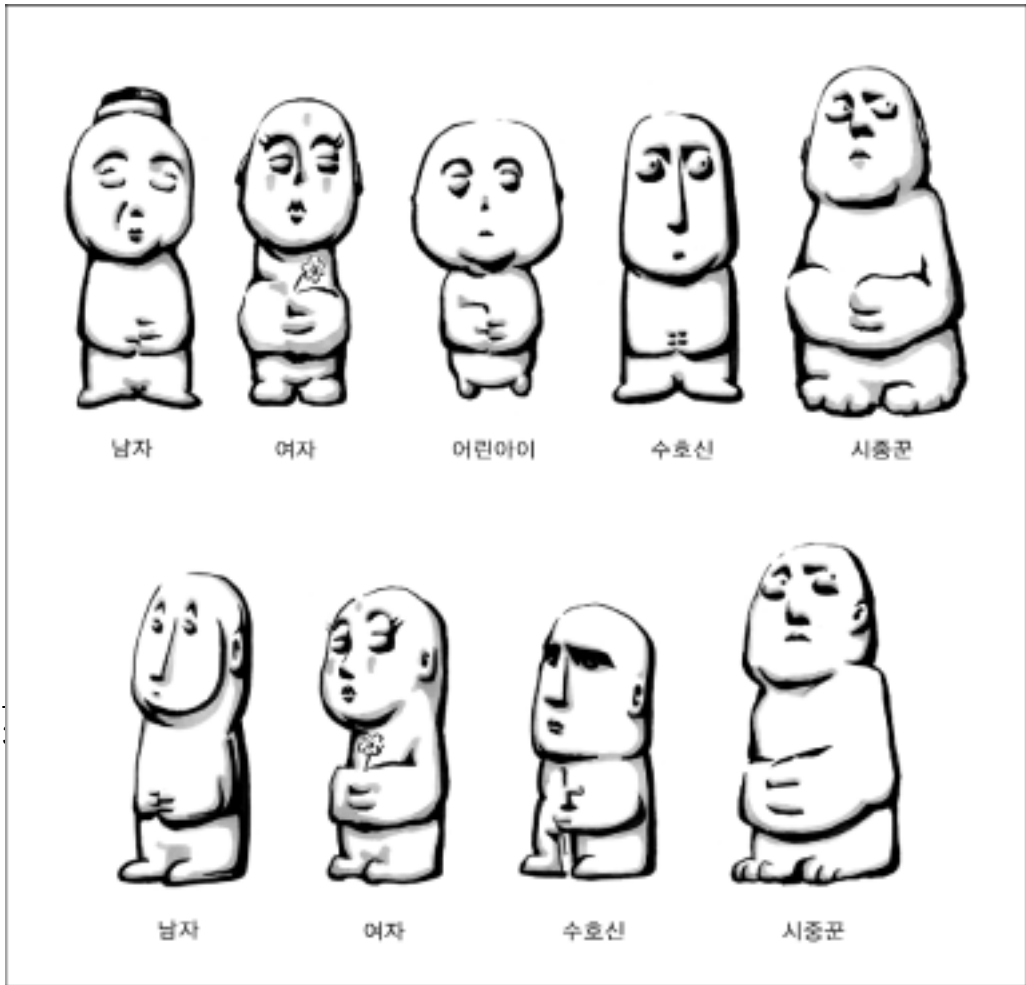


(1) 캐릭터디자인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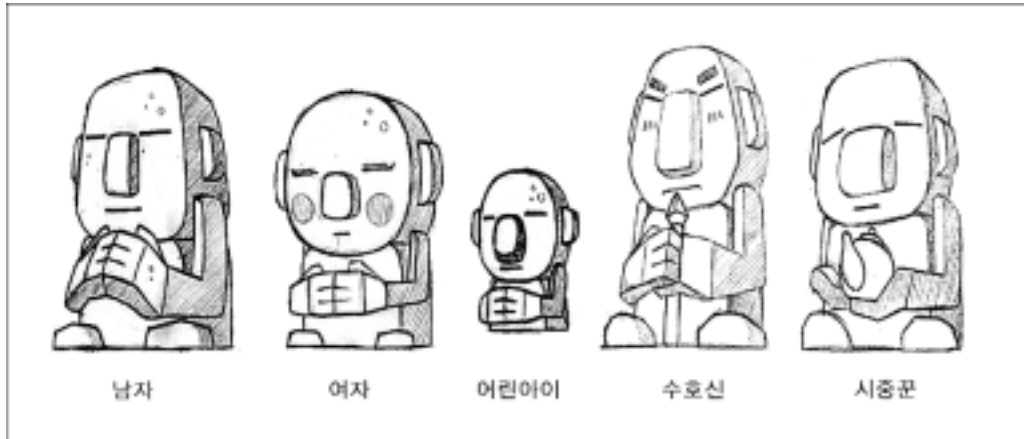
• 기본형

동자석의 실물형태 및 직접 현지 촬영한 동자석의 사진들을 참고로 각 동자석의 특징을 찾고, 그 특징 중 잘 나타나는 조형적인 요소(표17)를 추출한다.

조형요소 가운데 특히 비례<sup>35)</sup>는 캐릭터의 특징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동자석의 특징적인 이목구비 즉 눈이나 코, 입 등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강조하여 개성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각 모습의 조형적인 특징을



파악해서 사진들을 참고로 얼굴스케치, 형태를 여러 가지 스케치를 진행했다.



#### • 캐릭터 네이밍 선정

동자석을 소재로 디자인된 캐릭터를 '제주동이'라는 네이밍을 정하고(표18) (국문표기 '제주동이' 영문표기 'JejuDongi') 주색상은 제주 청정이미지 칼라(표19, 20)를 선택하였다.

## 6. 시작품

### 1) 기본형 스케치

#### ■ 형태별 기본 스케치 1

• 각 동자석의 특징을 찾고,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 시각을 추출한다. 이를 위해 각 동자석의 조형적인 특징을 파악해서 여러 가지 스케치를 진행했다.

#### ■ 형태별 기본 스케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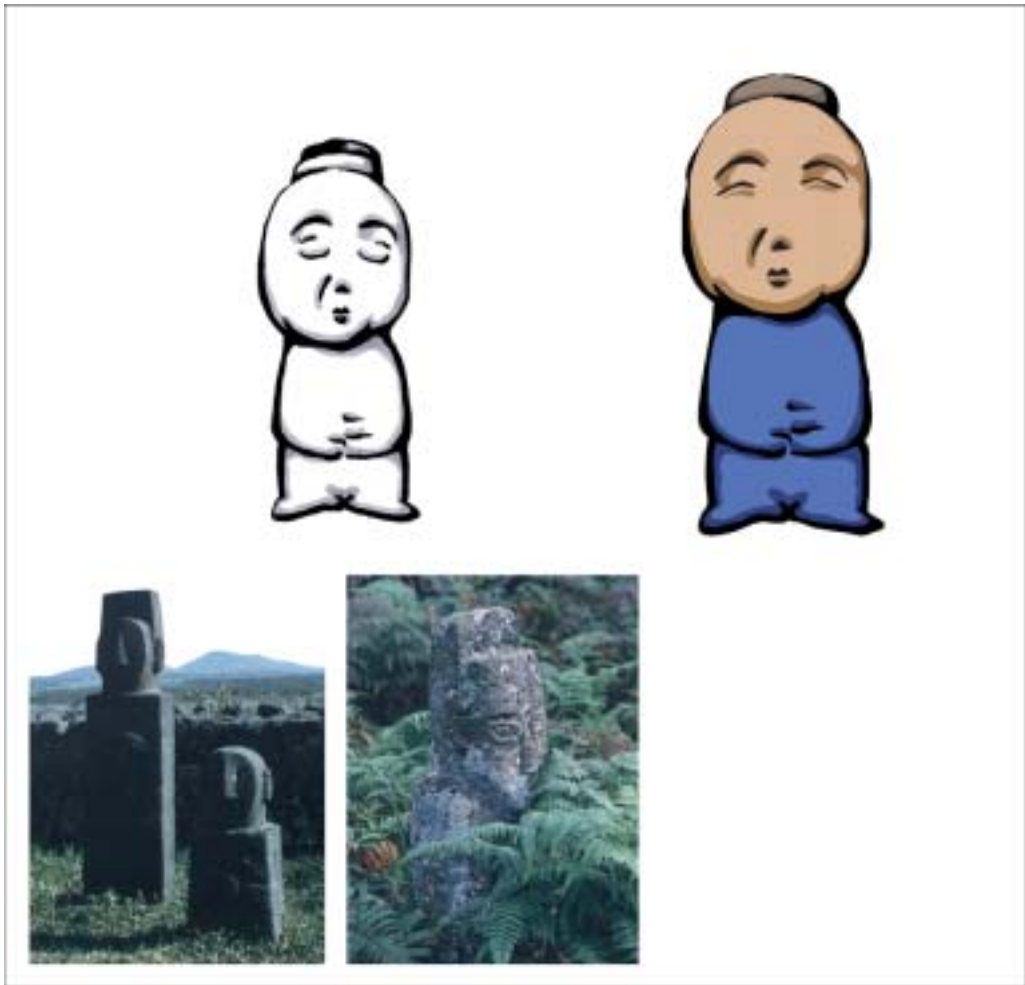
#### ■ 형태별 기본 스케치 3



## 2) 기본형 캐릭터

### (1) 제주동이 캐릭터 (남성)

- 형태특성 : 얼굴은 사각형이며 머리와 눈에서 강한 특징이 나타난다. 돌하르방



과는 달리 병거지모자를 쓰고 있지 않으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 (2) 제주동이 캐릭터 (여성)

- 형태특성 : 둥그런 얼굴에서 웃는 표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단히 부드러운 선으로 묘사되어 있다.



### (3) 제주동이 캐릭터 (어린이)

- 형태특성 : 머리가 크며 천진난만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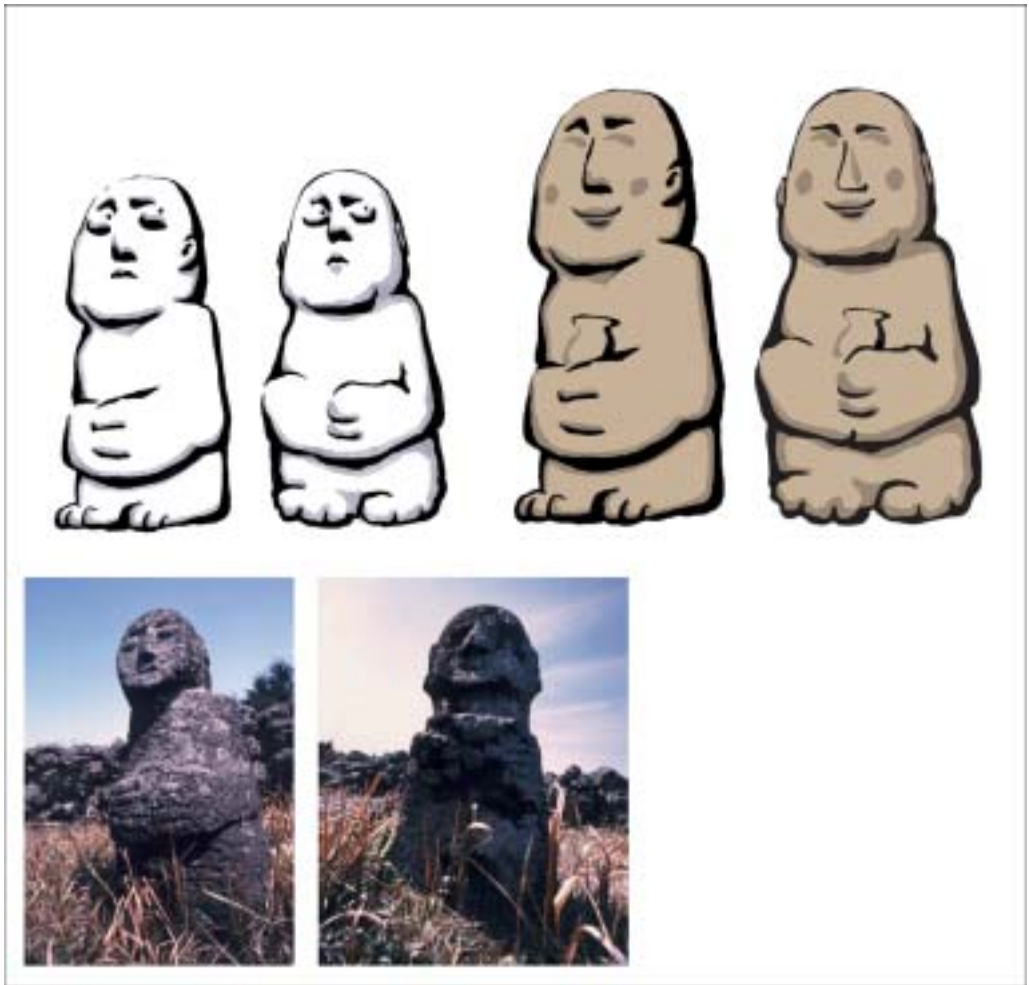
#### (4) 제주동이 캐릭터 (수호신)

- 형태특성 : 주인을 숭배하고 지키듯이 칼을 들고 있으며,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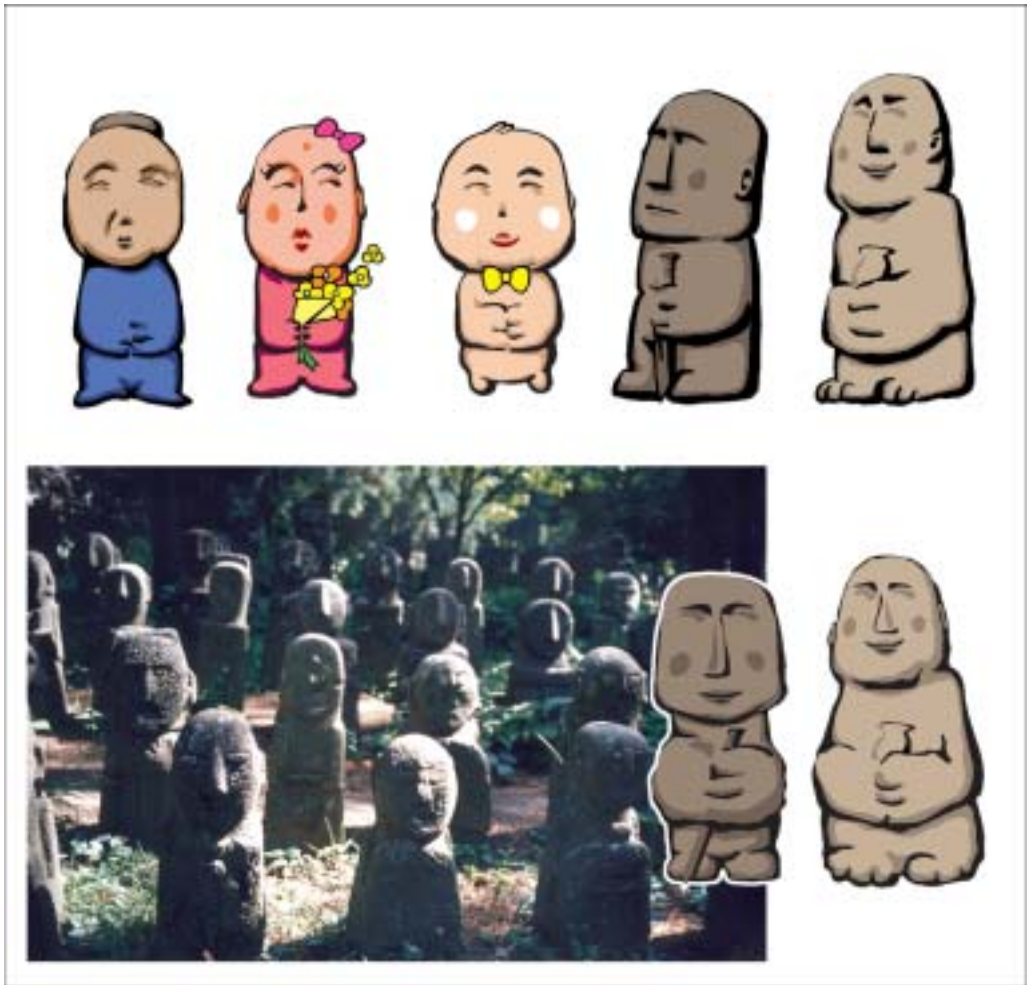


(5) 제주동이 캐릭터 (시중꾼)

- 형태특성 : 두 손모아 술을 들고 있으며, 손의 길이가 과장되게 길고 주인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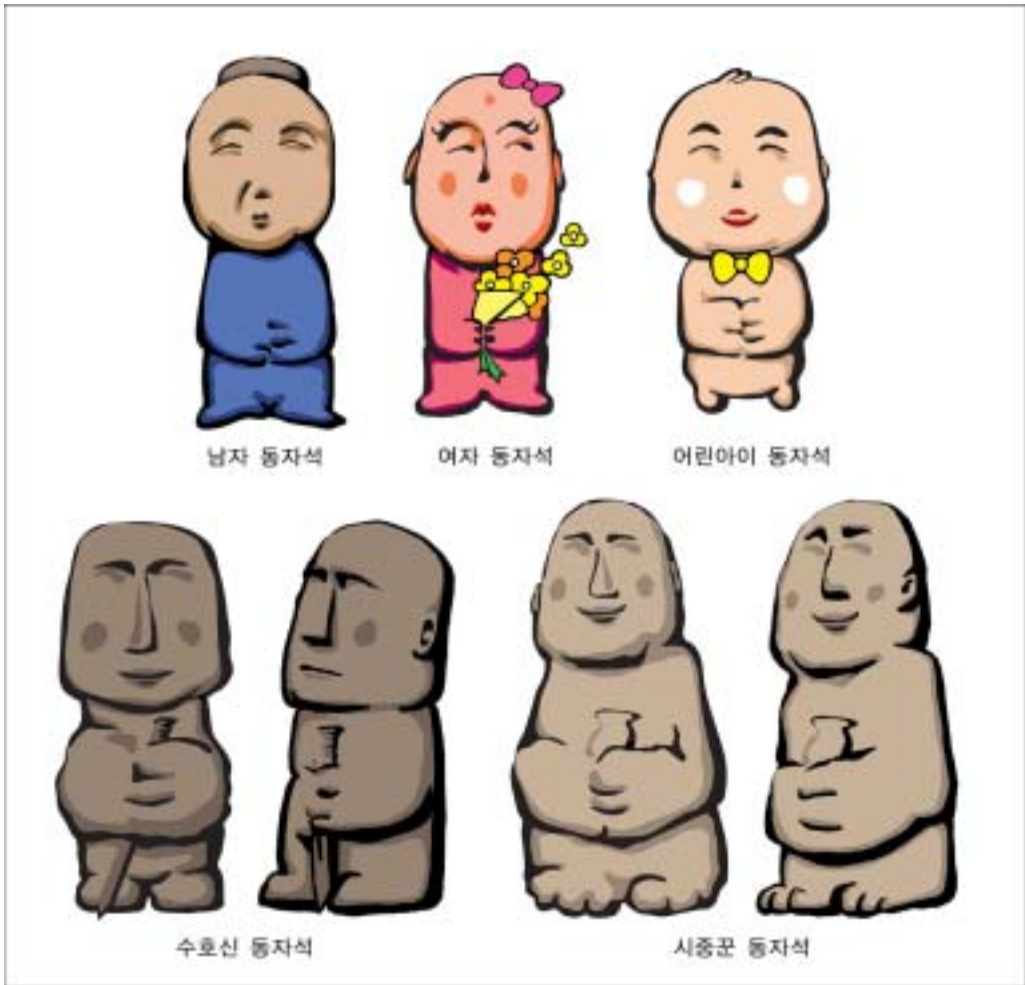
(6) 제주동이 캐릭터 전체





### 3) 완성된 캐릭터(기본형)

- 제주동이는 동자석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형상화함으로써 동자석의 고유 특징을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였다. 강한 외각선과 단순한 선으로써 뚜렷한 캐릭터 이



미지의 모습을 부각시켰으며, 여자 동자석은 유채 꽃을 들고 있어 제주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 4) 조합형 캐릭터

• 조합형의 개발은 ‘제주동이’ 캐릭터 제작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객에게 친근감과 이미지 연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형의 한 개 이상





의 캐릭터를 조합해서 특정한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한 것이다.

- 각종 서식, 관광상품에 상징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 조합형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캐릭터가 한 곳에 등장시키는 전체그룹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상황의 표현으로 전개시킬 수 있도록 했다.



## 5) 응용형 캐릭터

- 공공싸인 : 관광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제주동이’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안내역할을 하고 있다.



- 현수막, 배너 : 동자석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진 중요한 홍보매체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6) 상품화 캐릭터

- 기념뺏지 : 관광기념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다.
- 쇼핑백 : 관광상품 및 관측물의 포장에 쓰일 수 있다.



- 머그컵, 모자, 티셔츠, 필기류 : 관광기념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제주의 돌 문화중 동자석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동자석을 직접 촬영, 분석하여 이를 캐릭터디자인에 활용, 시작품을 통해 효과적인 캐릭터디자인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 1. 독창적인 캐릭터 디자인 개발

동자석을 활용한 캐릭터디자인은 지역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소재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홍보는 물론 지역민들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뿐 아니라 관광객에도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발전될 것이다.

(1) 동자석에 나타난 표정은 매우 다양하여 제주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재로서 디자인 된 캐릭터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적 향취와 소박한 분위기로 친근감을 쉽게 부여 할 수 있다.

(2) 동자석은 제주도지역의 특유한 돌 문화에서 자연 발생된 석물이며, 지역적인 상징성을 잘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특성을 부각시킨다.

다양한 연령층에 공감이 되는 형태로 제작, 전국 관광지와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하여 지역성을 강조하는 것도 PR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물론 지역외의 백화점, 특정 판매점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3) 다양한 시각매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원고 및 메뉴얼의 디지털화, Animation화, 입체화 등 현대 정보전달 체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야 한다.

(4) 캐릭터의 효과적인 활용과 다양한 형태활용을 위해 Identity개념을 도입해

야 하며, 상품화에 따른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한다.<sup>36)</sup>

캐릭터는 어떤 기능을 하든 생명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대조류에 맞게 시의적절한 변화를 통해 계속 재창조됨으로써 신선감을 부여하고, 캐릭터 자체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가야한다.

이제는 특산품이나 관광상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를 적용하여 다양한 캐릭터 상품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전략을 수립해야 하겠다.

## 2. 제주도만이 지닌 자원성을 발굴

제주관광의 가장 큰 문제는 제주관광의 매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는 천제연폭포나 성산일출봉 등 유명한 관광자원 및 관광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러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주민가의 정경,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해안의 경관,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비로소 보고 싶은 풍경일 것이다.

관광지로서의 캐릭터디자인 산업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시장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경우 돌, 바람, 돌하르방을 상징으로 한 캐릭터가 지역민이나 외부 관광객의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으나 결국 캐릭터는 시각전달 디자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의 그래픽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문화의 상징이요, 특산품인 하나의 상품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는 동자석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고찰하여 봄으로서 보존가치와 전승기술의 이해로 관광상품의 캐릭터디자인의 좋은 소재임을 재인식하고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존에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

36) 김훈, 캐릭터사업을 위한 안동 하회탈의 시각화, 한국디자인학회.1999. p.212.

## 참고 문헌

### ■ 국내 자료

-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10,1990
- 김상태, 제주도 외래 관광객 유치 촉진방안, 제주발전연구 3호,1999
- 김성은, 제주도 돌 문화와 조형디자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2002
- 김순두, 제주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통권 103호,1999,4
- 김지애, 조동민, 비례변형을 통한 효과적 캐릭터이미지 표현방안, 디자인학연구,2002
- 김영현 외, 지방자치체에 있어서 디자인사고 확립 및 시행방안, 디자인학 연구,2002
- 김훈, 캐릭터사업을 위한 안동 하회탈의 시각화, 한국디자인학회.1999.8
- 박노석 외, 지역 특성화를 위한 디자인적 접근 방안/테마공원을 중심으로, 디자인학 연구,1999
- 신동일, 제주의 장기체재형 관광/그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2002
- 양영근, 제주관광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통권 제42호, 제주시,1999
- 우리 문화 이야기, 제주교육 박물관,1999
- 정세욱, 21세기 제주시 비전과 발전전략, 21세기 제주시 발전위원회,2002
- 하봉준, 캐릭터 산업, 캐릭터 마케팅, 이미지 차별화 수단에서 상품화로의 전개/ 광고정보,1995

### ■ 인터넷 자료

- [www.andongmbc.co.kr](http://www.andongmbc.co.kr)
- [www.chejuinfo.com](http://www.chejuinfo.com)
- [www.iwebdy.net](http://www.iwebdy.net)
- [www.jeju.go.kr](http://www.jeju.go.kr)



- [www.jejusi.go.kr](http://www.jejusi.go.kr)
- [www.jdcenter.com](http://www.jdcenter.com)
- [www.namcheju.com](http://www.namcheju.com)

## ABSTRACT

# A Study on Character Design for Activating Tourism in Jeju

- Focusing on Dongjaseok, a unique folk feature of Jeju

Jong-Ku Woo

Major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Soo Son

The Island of Peace, International Free City, International Free Port -- Jeju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end of 2002, the world's tourist population has increased up to six hundred million or 10%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the effects on nation, regional economy and culture are great. Therefore, many nations of the world have considered and developed tourism as their strategic industry and the competition is wild.

The tourist strategy of most of the nations and regions has been focused on the times and the demand of the tourists under the aim of attracting as many tourists as possible and of creating tourist incomes.

The beautiful nature of Jeju Island is already well know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n the other hand, Jeju Island has its own culture distinguished from that of inland. This is because geographical features have influenced Jeju Island and the ways of life, religion and customs are unique.

Jeju is geographically a lonely island in the distant sea and unlike aristocratic high culture it has formed a folk culture different from that of inland based on popular culture combined with natural ways of life. Likewise, in respect of folk culture data, its academic and artistic value is recognized and since there are abundant data for studying folk culture the attention of the academy and public is rapidly growing.

As the history of Jeju proves, Dolharubang and Bangsatap situated here and there and Sandam and Dongjaseok built to protect the ancestors' graveyards reflect the ways of life of the citizens in Jeju Island.

Under this condition, especially, Dongjaseok, Jeju's unique folk feature, is a fine symbol for Jeju Island. Also, since modern people growing tired of materialistic civilization are showing more friendliness and attention to Dongjaseok, it should be used as a design motif to study and develop a character in fairytale and picture-like ways.

Character is not simply an element for design but a brand. The concept of character is already familiar to us as it is called a social communication industry. Moreover, its recognition is rapidly spreading. Besides that, character is effective in elevating regional PR and therefore, it can help distinguish Jeju's unique culture and characteristics.

Currently, many tourists are visiting Jeju Island because of its excellent natural tourist conditions. Character products are helping tourists understand and remember Jeju's folk culture and history. Therefore, developing character products and distributing the traditional culture of Jeju have the aim of elevating the image and the preference as a tourist site and secondly, of distributing the Jeju culture in the world.